

영어어문교육 제9권 2호 2004년 겨울

영어능력 인증제, 능력별 교과과정, 그리고 대학 교양영어 교육: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고찰

방 영 주

(명지대학교)

Bang, Young-Joo(2004). Cert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 proficiency-based curriculum, and College English program: A consider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2), 193-211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towards cert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 and proficiency-based curriculum, and to investigate their needs for developing college English program. A total of 597 students and 28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findings showed that both groups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the cert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 and proficiency-based curriculum. However, both groups showed a negative response to 'waive test' (testing for the replacement of English required class). They also expressed high level of needs in increasing the number of courses and credit hours, reducing the class size, and improving facilities. Both groups perceived speaking and listening as more important skills, while students showed various preferences for effective language practice activ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 should be supplemented with follow-ups both in pedagogical aspect and on administrative level.

[certification of English proficiency/proficiency-based curriculum 능력별 수업/영어능력 졸업인증제]

I. 서론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추세 속에서 대학의 영어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의 핵심에는 교양의 증진 또는 전공 학문연구를 위한 외국어 습득이라는 전통적인 교육목

표로부터,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영어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훈련과 영어 상용국의 문화 관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국제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이라는 새로운 교육목표에로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새롭게 설정된 교육목표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교양영어 교육을 위한 변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과목 개발과 능력별 수업 도입을 포함한 교과과정의 개편이나 영어능력 인증제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영어교육의 강화를 시도하고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획일화된 교과과정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소 모호했던 교육목표에 구체성과 특정성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여전히 교육 행정가나 교사이고 “이론적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는 일방적인 수혜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변화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새로운 과목의 개발이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토대 없이 교사의 막연한 현실감각에 바탕해 있고, 능력별 수업이나 영어능력 인증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학습자의 동의 없이 시행될 때, 학습의 동기와 성취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교육의 주체임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리고 현장 교육자들에 의해서도, 추인된 바이다. 그렇다면 대학 영어교육에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별 교과과정이나 인증제와 같은 “외적으로” 부가된 제도적 장치들을 학습자의 “내적” 필요성에 긴밀히 연관시켜야할 것이다. 요컨대 최근의—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듯,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변화들을 실제적인 효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협상된 교과 과정’(negotiated curricula)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상된 교과과정은 보다 효과적인 학습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분석(needs analysis)을 실시하고 이를 교과과목 개선과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부터 변화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에 진입한 국내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에 매우 적절한 이론적 도구가 된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탐구함에 있어서 특히 능력별 교과과정과 영어능력 인증제도의 시행이 교양영어 교육과 맺는 상관성을 연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영어학습/교육에 있어서의 학생/교사 각각의 요구분석,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교양영어 과목의 교수요목과 교과과정을 진단하는 한편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성, 즉 협상된 교과과정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보완책 및 대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국내 대학 영어교육에 일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최근 몇 년의 연구들은 효과적인 교양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양영어 전담기구 발족, 전담교원 확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 능력별 학습, 영어능력 인증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1997)은 대학의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실행 하는데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 학생들에게 좀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어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기여할 멀티미디어 시설 구축을 강조하였고,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목표의 설정, 평가제도의 확립, 학습 상승효과를 위한 교과제도 개편, 실용적 영어 과목 개설, 소규모 집단 학습방법 활성화, 수준별 학습, 영어교육 전담기구 발족, 교양영어 전담 교수제 도입, 영어 능력 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의 재학생과 사회활동을 하는 졸업생, 그리고 현 교양영어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과 내용, 교수방법, 과목운영에 관련하여 교양영어 전반에 걸쳐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영어 교과과정 개선 요인으로 교과목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 강좌당 소규모 학생 수, 배치시험 등 과목 구성과 관련된 사항, 효율적인 교실 수업,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과제 선정과 평가, 그리고 적합한 시험 평가방법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능력별 학급 편성 및 졸업인증 영어시험 시행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과목 구성, 필수 이수 학점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교사나 학생 모두가 강한 긍정을 표시했다.

조정순(2002)은 국내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교사와 학습자들 대상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개선책들이 현재 어느 정도나 극복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응답자들은 현재의 영어교육 체계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잔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어능력 인증제, 능력별 교과과정 등의 새로운 제도가 제기하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의문 등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쟁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들이 종국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제도적 변혁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영어교육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 곧 교육행정과 교사 사이에 그리고 그들과 학습자 사이에 놓인 간극을 극복하여 공동의 기대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세밀한 방안에 대한 요청이다. 여기에서 인본주의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방향성에 근거한 '협상된 교과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본주의적이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외적으로 부여된 학습목표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개인으로서의 학습자의 성향, 특성, 그리고 정의적인(affective) 특성을 학습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학습 형태를 모색한다. 이러한 학습의 특성은 학습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보다 효과적인

영어학습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교육 행정가와 교사의 교육과정 체반 문제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주도적 역할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교육 내용과 교수방법을 찾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데 있다.

기존의 언어학습은 학습과정의 학습목표 및 내용설정(planning), 진행(implementing), 그리고 평가(evaluation)의 일련의 연속된 순서를 따르며, 학습자는 교사에 의해 미리 정해진 학습목표, 내용, 활동, 자료 그리고 방법을 수동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학습자 중심의 언어학습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일련의 연속된 학습과정을 따르지만, 중요한 차이는 학습과정 전 단계에 걸쳐 학습자와 교사가 상호 협상을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학습과정의 설계를 이룸하여 '협상된 교과과정'이라 한다(Frodesen, 1995; Hutchingson & Waters, 1987; Nunan, 1988; 1999).

협상된 교과과정의 교육 형태는 학습자 요구 분석(needs analysis)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한 요구가 실현 가능한 학습목표를 세우는데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내용 및 학습활동 구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여러 연구자들은 효율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학습주체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왔다(Bensch, 1996; Berwick, 1989; Brindley, 1989; Ferris, 1998). Bensch(1996)는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교과과정의 설계, 교재 선정 및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요구 분석, 목표설정, 평가, 교재,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ichterich(1972)는 학습자의 요구를 객관적 요구(objective needs)와 주관적 요구(subjective needs)로 구분하여 객관적 요구를 학습자의 나이, 교육 배경, 학습 능력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보았고, 주관적 요구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 학습 과정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 등의 쉽게 진단되어질 수 없는 내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West(1994)는 학습자 요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목표어 사용분석(Target Situation Analysis), 학습자 능력 분석(Present Situation Analysis), 학습전략 분석(Strategy Analysis), 방법 분석(Means Analysis) 등으로 제시했다. 목표어 사용분석은 목표어에 대한 학습자의 현 언어능력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학습자 능력 분석은 학습자의 나이, 성별, 국적, 교육적 배경, 언어적 배경, 이전 학습경험,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목표 등에 관한 것이며, 학습전략 분석은 학습목표 및 과정에 대한 인식, 학습전략 사용, 학습목표 접근의 기대에 관련된 것이다. 방법 분석은 목표어의 지위, 정부의 태도, 훈련된 강사의 수, 교실 상황, 교수자료, 학습자의 동기, 기대, 학습스타일 등에 관련된다.

국내에서도 학습자 요구 분석의 개념을 원용한 선행 연구들이 적지 않다. 김길중, 신문수, 양현권, 김진원(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학습자 배경, 학습동기, 학습내용, 교수방법 및 교재에 관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시도했다. 한편, 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최인철(1998)은 실용영

어 의사소통능력 인증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시에, 영어능력 인증제도와 교양영어 교과과정을 상관성 속에 결합하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구별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대상 학교는 현재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교양전임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교양영어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그 기구의 명문화된 목적은 '지구촌 시대에 사는 대학생들에게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연마하고 경제·문화·정치 및 사업의 도구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실생활을 돕고 취업 및 진로를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높여주는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교양필수 과목으로 설정된 교양영어는 2002학년부터 신입생에 대하여 TOEIC시험을 거쳐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따라 단계화 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위 15%의 학생들에게 '영어강독'을 위한 선수과목으로 '영어문법' 수업을 실시하고, '영어회화' 선수과목으로서 '영어청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청해 및 영어회화 I, II 수업은 원어민 교수가 영어로 진행하고, 영어문법 및 영어강독 I, II 수업은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진행한다. 영어강독 I, II와 영어회화 I, II 수업은 두 학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상위 60%의 성적을 이수하여야만 다음 단계의 수업이 수강 가능하다. 현재 14명의 원어민 교수와 12명의 한국인 전담교원이 있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상 학교에서 영어능력 인증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2학년도 두 학기에 걸쳐 이미 필수 교양영어 과목을 이수한 2학년 학생들과 2003년도 현재 교양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공별로는 인문, 경상, 법정, 이공,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총 597명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 389명(65%)은 남학생이었고, 208명(35%)은 여학생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현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과개발을 위한 세부내용에 관한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설문조사와 더불어, 자원하는 학생의 2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학생들의 설문과 면담조사 외에도, 연구대상 대학의 교양영어 과정 소속 한국인, 원어민 전담교원 총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담교원 중 자원하는 6명의 교사와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14명(53.8%)은 남성이었고, 12명(46.2%)은 여성이었고

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새로운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인식과 현황 프로그램의 보완 대책에 관한 의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인 영어교사는 11명(42.3%)이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교사는 15명(57.7%)이었다. 한국인 영어교사는 주로 영어강독과 문법/어휘 수업을 담당하는 반면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교사는 영어회화와 영어청해 수업을 담당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3년도 가을학기 동안 학생들과 교사의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학년 학생대상으로 필수과목으로 개설된 교양영어 청해와 문법수업을 강독과 회화수업을 동시에 듣게 되므로 전체 63개 분반의 문법 및 강독 수업 중에서 무작위로 20개 분반을 선정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지를 집단적으로 배포·수거하였고, 교양영어 필수를 이수한 2002학년 학생들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자메일로 보내어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대답은 전체 1학년이나 2학년 대상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은 정동수와 김해동(2001)과 Harmer(2001)를 참고하여, 영어교육에 경험 있는 몇몇 교수들의 검토 후에 작성되었다. 또한 학습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로 작성되었고,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질문들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양영어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각 부문별 만족도(강좌수, 강좌내용, 교재, 강의실 제반 시설, 강좌당 학생수), 능력별 수업실시와 영어능력 졸업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외에 교과개발을 위한 세부내용으로 학습목표 방향, 수업시수와 학점, 교과목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 효율적인 교수방법 선택,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전략에 대한 필요성 및 사용여부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바람직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설문문항은 교양영어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각 부문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1-5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를 1로, '대단히 만족한다'를 5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능력별 수업실시,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도, 교과개발을 위한 세부내용, 교과목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 효율적인 교수방법 선택,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전략에 관한 문항에는 적절한 항목에 응답자들이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의 면담이 실시되었는데, 설문조사를 받은 응답자중에서 자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모국어로 이루어졌다.

교사에게도 학생들의 설문지 내용과 동일한 구성의 설문이 원어민 교사에게는 영문, 한국인 교사에게는 국문으로 주어졌다. 교사의 설문조사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배포·수거하였다. 교사와의 면담은 영어능력 인증제도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연구대상 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질량분석(quantitative research)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도구를 통하여 수집된 수치상의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하여 분석되었고, 각 항목에 있어 학생과 교사 응답자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관련된 세부분야에 대하여 학생에게 설문지를 활용하여 질문하였다. 설문결과 제시는 설문지의 구성 순서에 따라 제시하며, 척도상으로 질문된 개별 항목에는 각 집단의 응답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명시하기로 하는 반면에 적절한 항목에 응답자들이 선택하여 답하는 방식에는 응답 빈도수와 빈도분포로 제시하기로 한다.

1) 현 교양영어 교과과정의 만족도

현 교양영어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교양영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강좌의 수, 강좌의 내용 및 구성, 강의실 제반 시설, 교재의 적절성, 강좌당 학생 수)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 학교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능력별 수업과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의 찬·반 의견을 물었으며, 각각의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1) 교양영어 교과 과정에 대하여

교양영어 교과과정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를 표 1에서 제시한다. 이 부분은 척도를 활용한 문항이므로 각 집단의 응답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명시하기로 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과 교사 대부분이 현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교양영어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항 목	학 생 (n=597)		교 사 (n=26)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영어문법/어휘	3.97	.56	3.98	.46
영어강독	4.12	.43	4.35	.27
영어청해	4.24	.68	4.26	.39
영어회화	4.01	.72	4.21	.55

(2)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각 부분별 만족도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각 부분별 만족도에 관하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양영어 강좌의 수, 강좌내용 및 구성, 강의실 제반 시설, 교재의 적절성, 그리고 강좌당 학생 수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여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과 교사가 각 부분별 만족도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과 교사는 강좌의 수와 강좌의 제반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2
현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각 부분별 만족도

항 목	학 생 (n=597)		교 사 (n=26)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강좌의 수	2.35	.41	2.42	.36
강좌의 내용 및 구성	4.26	.23	4.37	.39
강의실 제반 시설	2.83	.86	2.69	.21
교재의 적절성	3.64	.25	4.11	.54
강좌당 학생 수	3.27	.62	3.62	.63

또한, 각 부분별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문지에 적게 하였을 때, 교사와 학생들은 주로 '강좌의 수가 너무 적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강좌가 필요하다.' '강좌의 강의실이 수업을 위해 적절하지 못하다.' '시설(시청각 기자재)이 부족하다.' '강의실이 그룹활동 하기에 불편하다.'고 반응을 보였다. 그 외에도 강좌당 적절한 학생 수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든 영어수업(강독, 문법-어휘, 회화, 청해, 작문) 경우에는 10-20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교사는 영어회화나 영어청해 수업에서 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10-20명의 학생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강독이나 문법/어휘 수업의 경우에는 20-30명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은 김길중의 3인(199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는데, 응답자의 95%가 20명 이내의 영어 수업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2001년에 실시한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정동수와 김해동, 2001)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연구대상 학교의 교양영어 과목은 영어강독과 영어문법/어휘 수업의 경우에는 35명, 영어회화와 영어청해 수업의 경우에는 30명을 최대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생들과 교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실의 확보, 분반의 확대 그리고 교/강사의 보충 등의 구체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3) 능력별(또는 수준별) 수업에 관하여

능력별(또는 수준별) 수업에 관하여 학생들과 교사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 부분은 척도를 활용한 문항이 아니라, 적절한 항목에 응답자들이 선택하여 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설문결과는 응답 빈도수와 빈도 분포로 제시하였다. 설문결과로부터 능력별 수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452명의 학생들(75.7%)은 능력별 수업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145명(24.3%)의 학생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반면에 모든 교사(100%)들은 능력별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
능력별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항 목	학생(n=452) 교사(n=26)			
집단 내 동질성 확보로 학습동기 유발	30	6.6%	0	0%
동질 집단내의 경쟁심 유발로 학업 성취도상승 효과 기대	57	12.6%	0	0%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교재 선택 및 높이가 학습의 효과기대	279	61.7%	24	92.3%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평가 방식의 선택가능	86	19.0%	2	7.1%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과 교사 모두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능력별 수업이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교재선택 및 높이가 학습의 효과기대'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평가 방식을 선택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였다. 즉,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비슷한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 능력에 맞는 교재 선택은 물론 가르치는 방법에서나 평가에도 적합한 방식을 도입하기 이로운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학생들의 경우는 그 이유를 직접 설문지에 쓰도록 하였을 때, '능력별 수업을 위한 평가도구의 타당도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학급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학습의 욕의 저하를 가져온다.' '수업에 상위학생과 하위학생이 끌고루 섞여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능력별 분반 기준을 현행 시행되고 있는 평가도구인 TOEIC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64.5% 학생들이 불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능력별 수업 분반기준 평가도구로

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의 성적' (54.2%) 'TOEIC/TOEFL/TEPS의 표준화된 외부공인 시험'(32.7 %) '수능시험에서의 영어성적'(13.6%) 순서로 희망했다. 교사들 역시 전혀 TOEIC 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준비 없이 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73.1%)을 우선으로 꼽았고, '수능시험에서의 영어성적' (23.1%), 'TOEIC/TOEFL/TEPS의 표준화된 외부공인 시험 성적'(3.8%) 순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기존에 실시되어 오고 있는 평가도구의 신뢰도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4
능력별 수업 분반기준 평가도구에 대한 응답자수의 비율

항 목	학생 (n=597)		교사 (n=26)	
수능시험에서의 영어성적	78	13.6%	6	23.1%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시험 성적	324	54.2%	19	73.1%
TOEIC/TOEFL/TEPS의 표준화된 외부공인 시험 성적	195	32.7%	1	3.8%

(4)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와 인정 학점제

본 연구대상 대학에서 2002년 이래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71.2%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28.9%의 학생은 영어능력 인증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교사에게 그 이유에 대해 설문지에 적게 하였는데, 두 그룹 모두가 '영어가 필수인 국제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전반적인 영어 학습의 계기가 강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졸업 인증제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들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의무적인 학점획득은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공과는 무관한 영어성적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전공별로 영어능력요구 기준이 다르다' 라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표 5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응답자수와 비율

	학 생 (n=597)		교 사 (n=26)	
찬성	425	71.2%	18	69.2%
반대	172	28.9%	8	30.8%

또한, 외부공인 영어 능력시험(TOEIC/TOEFL/TEPS) 점수로 교양영어 과목 수강을 의무 면제해 주는 인정학점제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물었을때 47.7%의 학생들과 43.3%의 교사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유로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시험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영어실력 향상 가능'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외에도 '평가척도로서의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 '학교에서 받은 점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받음' 등의 순위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1학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 영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표 6

영어능력 인정 학점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항 목	학생(n=285)		교사(n=11)	
시험준비 과정에서 유용한 영어실력 향상가능	121	42.5%	7	63.6%
평가척도로서의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	92	32.3%	2	18.2%
학교에서 받은 점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받음	64	22.5%	1	9.1%
기타	8	2.8%	1	9.1%

반면에,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52.3% 학생들과 57.7%의 교사는 영어능력 인정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 상실 우려'를 주요인으로 들었고, 그 외에도 '실용적 영어실력의 지표가 될 수 없음,' '인증가능 점수 받기 위해 과도한 시간과 노력필요,' '수험비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7
영어능력 인정 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

항 목	학생 (n=312)		교사 (n=15)	
실용적 영어실력의 지표가 될 수 없음	89	28.59%	3	20.0%
인증가능 점수 받기 위해 과다한 시간과 노력필요	51	16.39%	1	6.6%
수험비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33	10.6%	1	6.6%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 상실 우려	134	42.9%	10	66.7%
기타	5	1.6%	-	0%

영어능력 인증시험의 적절한 평가도구에 대한 질문에 표 8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TOEIC시험을 최우선으로, TOEFL시험, 교내에서 제작/시행하는 영어능력 시험을 그 다음으로 들었다. 이것은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 TOEIC이나 TOEFL의 공인된 시험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동시에 준비함으로써 성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대부분의 교사는 교내에서 제작/시행하는 영어능력 시험을 가장 먼저, TOEIC과 TOEFL 시험을 그 다음 순위로 들었는데, 교사는 TOEIC 시험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8
영어능력 인증시험의 평가도구

항 목	학 생 (n=597)		교 사 (n=26)	
TOEIC	386	64.7%	6	23.1%
TOEFL	113	18.9%	5	19.2%
TEPS	17	2.8%	-	0%
교내에서 제작/시행하는 영어능력 시험	81	13.6%	15	53.6%

2) 교과목 개발을 위한 세부내용

교과목 개발을 위한 세부 내용으로 주어진 네 가지 질문은 교양영어 학습목표의 방향, 필수 교양영어로서의 수업시수, 영어교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선택, 그리고 학습자가 영어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적인 학습전략에 관한 것이다.

(1) 대학 교양영어 학습목표

표 9에서 제시하듯이, 대학 교양영어 학습목표에 대하여 교사들은 ‘영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하기’(38.5%)와 ‘영어를 구사하는 문화권의 사람들과 영어

로 의사소통하기'(30.8%)를 중요하게 보았고, 반면에 학생들은 주로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대비를 위한 준비하기'(40.5%)와 '영어를 구사하는 문화권의 사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31.2%)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로 보아 이것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대학 교양영어 학습목표 설정에 대한 응답자 수와 비율

항 목	학생(n=597)		교사(n=26)	
영어를 구사하는 문화권의 사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371	31.2%	8	30.8%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대비를 위해 준비하기	484	40.5%	3	11.5%
다른 제 2외국어와 같이 지적인 생활을 위한 교양서적 읽기	57	4.8%	1	3.8%
앞으로 자기 전공학습(졸업 후 유학)을 위한 영어실력 쌓기	213	17.8%	4	15.4%
영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하기	69	5.8%	10	38.5%

(2) 필수 교양영어 수업 시수와 학점 수

졸업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영어 필수 수업 시간 수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연구대상 학교의 필수 교양영어 과목의 수업 시간 수는 한 학기 일주일 4시간 수업하는 것을 3학점으로 하여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영어 필수학점이 6학점 8시간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직접 쓰게 하였을 때, 상당수의 응답학생들과 교사는 졸업할 때까지 이수해야 하는 교양영어 학점이 8-10학점, 시간 수도 10-12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교 행정가가 인식하는 것 보다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3) 교과영어 과목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

교양영어 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을 7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영역을 고르게 하였을 때, 결과는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은 말하기, 듣기, 발음, 쓰기, 문법, 읽기, 그리고 어휘 순위로 중요성을 들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언어의 4 기술에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다른 능력보다 부족함을 인식하고, 졸업 후 도구적 목적으로서의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9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동수와 김해동(2001)의 설문연구 결과와 유사한 순위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교사는 말하기, 듣기, 읽기, 문법, 쓰기, 발음, 그리고 어휘 순위로 중요성을 들었다.

표 10
교양영어 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

항 목	학 생 (n=597)		교 사 (n=26)	
말하기	524	29.3%	19	24.4%
듣 기	470	26.2%	19	24.4%
발 음	198	11.1%	6	7.7%
읽 기	127	7.2%	13	16.7%
쓰 기	182	10.2%	10	12.8%
문 법	169	9.4%	8	10.3%
어 휘	118	6.6%	3	3.8%

(4)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선택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선택에 대하여는 학생들에게만 각 영어학습 훈련 분야의 세부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항목의 효율성을 물어 보았으며 표 11은 교과 영역에 대해 응답자가 선호하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순위대로 열거한 것이다. 말하기에서는 '파트너와 말하기 연습,' '게임,' '그룹별 주제에 의한 토의'를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개인발표보다는 그룹활동을 통한 학습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듣기에서는 '주된 내용 파악하기,' '특정 정보를 듣는 훈련,' '듣고 받아쓰기,' 그리고 '설명을 듣고 그림과 연결하기'를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졸업 후 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시험 훈련으로 이 방식들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읽기에서는 '문장의 주된 내용·어휘·문법 등을 분석하기,'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 그리고 '빨리 읽고 주된 내용 파악하기'를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학생들이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쓰기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작문하기,'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쓰기,' '예비 작문하기,' '비공식 문서, 수필문, 소설 등에 대한 쓰기' 훈련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문법과 어휘교육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으며 문법만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방식보다는 특정 문법사항을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더 선호하였고, 어휘 수업활동도 쪽지 시험을 통한 반복연습에 의한 것보다는 어휘의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1

교양영어 영역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방법

말하기	듣기
1. 파트너와 말하기 연습	주된 내용 파악하기
2. 게임	특정 정보를 듣는 훈련
3. 그룹별 주제에 의한 토의	듣고 받아쓰기
4. 연극 및 역할극	설명을 듣고 그림과 연결하기
5. 노래활동	문답식 질문에 답하고 정/오 확인하기
6. 그룹별 과제활동	듣고 그림을 완성하기
7. 교재에 따라서 진행	교재에 따라 진행
8. 개인발표	순서 없는 대화 듣고 대화 순서 매기기
9. 컴퓨터 활용을 통한 말하기 연습	
쓰기	읽기
1.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작문하기	문장 주된 내용, 어휘, 문법을 분석하기
2.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쓰기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
3. 예비 작문하기	빨리 읽고 주된 내용 파악하기
4. 비공식 문서, 수필문, 소설 등 쓰기 훈련	문제 풀면서 전체내용 파악하기
5. 글의 주제문, 서론, 결론 등을 쓰는 훈련	어휘 연습활동
6. 공식 문서 작성에 대한 쓰기 훈련	문맥속의 내용을 추론해 내기
7. 본문의 교정 작업하기	
8. 아이디어 짜내기 연습	
문법	어휘
1. 특정문법사항을 예문 가지고 설명하기	어휘의 어원에 대하여 설명하기
2. 문제 풀이식으로 문법설명 및 분석하기	쪽지시험을 통한 어휘 반복연습하기
3. 문법만을 정확히 설명해 주기	

(5) 학습전략

학교 영어교육 외에 학습자 스스로가 영어 실력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학습 전략에 관한 질문에 396명(66.3%)의 학생들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01명(33.7%)의 학생들은 학습 보완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지에 직접 쓰게 하였는데,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설학원을 통하여'(34.6 %)와 '수업내용의 예습이나 복습을 통하여'(18.4%), '개인 교습을 통하여'(14.4%), '자발적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10.4%), '학교내 어학 프로그램을 통하

여'(8.1%), '영어동아리 활동을 통하여'(6.6%), 'IT(정보기술)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4.8%), '공동학습과 세미나를 통하여'(1.8%)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개인의 학습전략을 도모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12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학습전략

항 목	학 생 (n=396)	
시설확원을 통하여	137	34.6%
수업내용의 예습이나 복습을 통하여	73	18.4%
개인 교습을 통하여	57	14.4%
자발적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41	10.4%
학교내 어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32	8.1%
영어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26	6.6%
IT(정보기술)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19	4.8%
공동학습과 세미나를 통하여	7	1.8%
기타: 해외연수, TV/라디오로 영어프로그램 시청, 영자신문보기	4	1.0%

그 외에도, 학교에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시행해주시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하여 설문지에 적게 했을 때, '영어 정규수업(회화, 청해, 문법, 강독, 작문) 전반에 걸친 강좌 증설,' '학교내 어학 프로그램 (TOEIC/ TOEFL/TEPS, 독해/작문/청해/회화) 등 각 영역별 방과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가령, 연구대상 대학에서 시행되는 English Cafe나 English Clinic) 활성화,' '어학실(기자재) 설비 증설,' '외국 대학과의 교류 및 외국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서 공부할 기회 대폭 증대,' '학교내에서 자발적 스터디 그룹을 위한 공간 제공'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보충 영어교육을 위해 학교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최근 몇 년간 국내 영어교육의 변모는 제도상의 여러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현재 연구대상 학교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대로 교양영어 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능력별 수업과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학습으로 결과되기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현행 체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그들의 욕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의 요구 및 만족도를 도의시킨 채 행정적 사고에 의한 일방적인 제도 도입이나 변화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제도나 교과과정이라 할지라도 각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의 각기 다른 요인의 개입을 고려해볼 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제도라 할지라도 각 교육 행정가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나 교사의 학습·교육 여건과 역량, 태도와 인식에 바탕하여 그 학교 특성에 맞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과 교사의 만족도 및 욕구분석을 통하여 교양영어 프로그램, 능력별 수업, 영어능력 졸업인증제, 그리고 인정학점제에 대한 평가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개선 방안을 위한 영어교육 목표, 교과영역, 효율적인 교수방법, 그리고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학습책략 등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들로부터 학생들과 교사는 현 교양영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영어교육의 각 부분별 영역(강좌수, 강좌내용 및 구성, 강의실 제반시설, 강좌당 학생수)에 관련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가령, 강좌수를 늘린다든지, 강좌당 학생수를 20명 이내로 줄인다든지, 강의실 시설(시청각 기자재 부족)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이다. 능력별 수업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능력별 수업을 위한 분반 기준 평가도구에 관하여는 학생들의 정확한 영어실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공인시험보다는 학교자체에서 개발한 시험이나 수능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2002년 이래로 시행되어오고 있는 영어능력 졸업 인증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학생들은 국제화 시대에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는 전공별로 영어능력 요구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공별 졸업 인증제의 점수를 유연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공인시험으로 인정학점을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는 자칫 학생들이 대학 교양영어 교육보다는 외부 공인시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대학 영어교육의 존재의미 상실을 가져 올 수도 있고, 평가도구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에 부족한 것을 인식하여 영어의 4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는 자체적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교과개발을 위한 학습목표가 학습자의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수업시수와 학점수 증가도 고려해봄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규과정 외에 학교내 어학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English Cafe와 English Clinic) 등 다양하게 학습할 공간이나 기회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학교의 현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보완적 내지는 대안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모색에 있어서 최근 영어교육의 추세인 학습자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교육행정가들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협상된’

교과과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능력별 교과과정의 운영이나 영어 능력 인증제의 시행이 연구대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내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학습자와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적 현황의 문제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 및 대안들은 여타 많은 대학들의 제도 변화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또는 유사한 연구 조사의 출발점으로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길중, 신문수, 양현권. (1999).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분석: 사례 연구. *외국어교육 연구 2*, 1-28.
- 박남식, 조준학, 김충배, 김임득, 최인철. (1998). 실용영어 의사소통 능력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3(2), 179-201.
- 정동수, 김해동. (2001).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4), 265-292.
- _____. (1997). 교양영어 과목 평가의 유형제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응용언어학*, 13(2), 177-205.
-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 대학영어의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방안. *영어교육*, 52(4), 303-330.
- 조정순. (2002). 대학 교양 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57(2), 365-394.
- Bensch, S. (1996). Needs analysis and curriculum development in EAP: An example of a critical approach. *TESOL Quarterly*, 30, 723-738.
- Berwick, R. Needs assessment in language programming: From theory to practice. In K. J. Robert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pp. 48-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ndley, G. (1989). The role of needs analysis in adult ESL programme design. In K. J. Robert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pp. 48-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ris, D. (1998). Students' views of academic aural/oral skills: A comparative needs analysis. *TESOL Quarterly*, 32, 298-318.
- Frodesen, J. (1995). Negotiation the syllabus: A learner-centered, interactive approach to ESL graduate writing course design. In D. Belcher & G. Braine (Eds.), *Academic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Essays on research and pedagogy* (pp. 331-350). Norwood, NJ: Ablex.
- Harmer, J. (200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Essex: Longman.

- Hutchingson, T. & Waters, A. (198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learning-centered approa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 (1988).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Heinle & Heinle Publishers.
- Richterich, R. (1972). *A Model for the Definition of Language Need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West, R. (1994). Needs Analysis in language teaching. *Language Teaching*, 27: 1-19.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방 영 주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전화번호: 02-300-1827

E-mail: yjbang@mju.ac.kr

Received in Nov., 2003

Reviewed in Dec.,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an., 2004